

#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 29개 광역·기초의회 선거 완료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 총 60명 첫 여성 광주시의장 등 여풍 거세 야합 논란·협박 의혹...구태도 여전

목포시의회가 지난 9일 원 구성을 완료하면서 민선 9기 광주·전남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선거 기간 다수당 독식·협박 의혹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밀려나며 향후 의정 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2개 광역의회와 27개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모두 마무리됐다.

의장단은 의장·부의장을 합쳐 모두 60명으로, 광역의회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

의회가 3명씩 총 6명, 광주 5개 구의회와 전남 22개 시·군의회 등 27개 기초의회에서 각 2명씩 총 54명을 선출했다.

기존과 달리 '여풍' 바람이 거셴다. 광주시의회와 여수시의회에서는 1991년 7월 지방의회 부활 이후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수정(북구3) 의원이 당내 경선을 거쳐 의장에 선출됐다. 또 다른 여성의원인 채은지(민주당·비례) 의원은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광주시의회는 처음으로 의장단 3석 중 2석을 여성 의원이 차지하게 됐다.

여수시의회에서는 3선 백인숙(광림·여서·문수) 의원이 '첫 여성 의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백 의장은 전체 의원 24명 중 21명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광주 동구의회와 남구의회에서도 각각 지난 3일과 4일 여성 의원인 문선화, 남호현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전남에선 진도군의회 박금례 의원의 의장에 선출됐다. 박 의장은 8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어 4년만에 또 다시 의장에 당선됐다. 여성 부의장은 순천·구례·보성·무안군의회 등에서 4명이 배출됐다.

이런 가운데 원구성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협박성 우편물이 배달되는 등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연일 터져 나왔다. '2년의 감투'를 두고 발생한 갈등과 반복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약세 후보들간 연대를 놓고 야합 논란이 제기됐다.

또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회에 지역 균등 분배가 이뤄져야 하지만,

제비뽑기를 통해 북구갑(1~3지역구)·을(4~6지역구) 의원들이 한 상임위에 몰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광주 북구에선 중앙당 지침을 어긴 채 특정 후보를 임의추대했다가 반발을 샀고, 광산구에선 전반기에 제비뽑기를 하더니 후반기에는 역시 추대 형식으로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동·서부권 주자간의 피말리는 경쟁이 벌어지면서 결선투표 끝에 2표차로 성패가 갈렸고, 2명의 부의장과 상당수 상임위원장이 낙선한 의장 후보 측 인사들이어서 뒤끝이 개운치 않다.

강진에서는 특정 의원에게 협박성 우편물이 배달된 뒤 해당 의원이 돌연 부의장 후보로 돌아서며 라이벌 후보 측에 합류

해 뒷말이 나왔고, 나주에선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며 의장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목포에선 음주운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면서 과반인 민주당 의원들의 내부 표 이탈로 부의장을 무소속 이동수 의원에 넘겨주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앞서 목포시의회는 지난 1일 치러진 목포시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내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하면서 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에서 조성오 의원에게 패배한 김귀선 의원이 "의장단 후보 선출은 공정성을 상실한 경선"이라며 의장 출마 강행,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 전남 서남권 조선업 재도약 '청신호' 켜졌다

### HD현대삼호, 제2돌핀 안벽 준공 연 최대 6척 추가 건조...일자리 기대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 재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영암의 HD현대삼호에서 LNG운반선 건조에 필요한 제2돌핀 안벽 준공됐다.

HD현대삼호 제2돌핀 안벽 준공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권오갑 HD현대 회장, 신현대 HD현대삼호 사장, 김형관 현대미포 사장 등 HD현대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돌핀 안벽은 일종의 부둣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조선소 도크에서 선박을 진수한 후 계류시켜 의장, 전기 배선 등 선박 건조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시설이다.

기존 선박의 경우 안벽공정에 통상 2개월이 소요되는데 반해 HD현대삼호의 주력 선종이자 대표적인 친환경 선박인 LNG운반선은 7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HD현대삼호는 안벽 부족으로 친환경 선박 추가 수주에 제약이 많았지

만 이번 안벽 신설로 연간 최대 6척의 선박을 추가로 건조할 수 있게 되면서 1조 5400억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서남권 조선산업이 그동안의 긴 불황을 뚫고 본격적으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HL디앤아이하라가 시공한 제2돌핀 안벽에는 총 1102억 원이 투입됐다. 총 길이 383m, 차량용 도로 146m, 등부표 및 오타방지막 등을 갖춘 의장안벽은 한 번에 최대 4척의 선박을 계류할 수 있다.

명창환 부지사는 "제2돌핀 안벽은 단순한 선박 건조시설 확대를 넘어 서남권 조선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HD현대삼호의 친환경 경쟁력 강화로 지역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삼호는 1만35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5조 9588억원(2022년·4조6464억원), 영업이익 317억원(2022년·17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조선업계 꿈의 영업이익률 10%를 돌파, 10.92%를 달성해 HD현대그룹에서도 알짜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0일 영암군 HD현대삼호 일원에서 열린 'HD현대삼호 제2돌핀 안벽 준공식'에 참석해 주요 내빈들과 준공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오늘 제13회 인구의 날'

▶1면서 계속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도는 더욱 절박하다. 전남도는 난임부부·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등 '전남형 출산정책' 강화를 위해 △도·시군 318 출생수당(1세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원 △난자냉동기술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소득·희수 제한없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의 정책을 진행중이다.

여기에 △아동맞춤 마을돌봄 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3→38개소) △전국선도 전남형 주거혁신시책 '만원주택' 본격 추진 등과 함께 △'체류형 생활인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전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보편적 복지 이상의 지역만의 유인책을 마련

해야 한다"며 "광주는 의료·돌봄 케어 등의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결국은 출산·양육환경 개선, 다자녀 지원 확대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 지원정책이 중요하다"면서 "방치하면 전멸한다는 마음으로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숯,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숨쉬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